

다들 나에게 희망을

기획

제3대 이사장 이해경, 그리고 제4대 이사장 장필화를 만나다
한국여성재단 이해관계자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나는 '이퀄리티(Equality)' 세대입니다: 여성의 권리 실현하기

만나고 싶었습니다

100인 기부 릴레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이슈와 현장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여성일자리 W-ing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5년여의 소임을 마치며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사랑하는 한국여성재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년여 전 재단이사장 취임인사로 소식지 사립문을 열던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성평등은 인류보편의 가치이고, 역사의 방향이라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 발짝 쫓아서는 사회적 엔지니어링이고, 한국여성재단은 여전히 그과업의 역사적 대행자(agency)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대중모금과 배분을 통해 여성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태어난 20년 된 독립 민간공익재단입니다. 전국의 모든 여성단체들과 여성리더들이 “한마음” 되어 탄생시킨 한국여성운동의 빛나는 금자탑입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주의와 척박한 나눔(기부)문화라는 한 뿌리의 두 개의 험준한 산을 향해 동시에 싸움을 거는 거대하고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한국여성재단은 대한민국에 유일한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높은 사회적 신뢰와 촘촘한 연대의 보이지 않는 자산을 키워왔습니다.

재단의 세 번째 이사장으로서 지난 5년 동안 불독과 싸운 두 개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과제이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넘겨드리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가 모금확대와 전략의 다변화입니다. 재단의 역사와 함께 해 온 100인 기부 릴레이와 기업사회공헌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모금 전략입니다. 다만 한국사회의 대중모금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어서, 일부 NGO들의 천억원 대 모금

이 낮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평등 가치가 디지털 시대의 대중적 공감과 만나는 접촉면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대중모금은 곧 성평등 가치를 대중적으로 보편화하는 실질적인 전략이자 새로운 디지털세대를 끌어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한국 여성운동의 실체를 진단하고 변화를 해석해내고 방향을 찾는 열린 토론의 중심이 되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운동이 많은 것을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의 성평등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현장에서의 혐오와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전 한국여성재단을 만든 여성운동의 “한마음”이 기적같습니다. 탈근대적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결과일까 여성운동 내부에서의 세대간, 집단 간 과도한 정체성 경쟁이 여성운동의 건강한 다양성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n번방사건 같은 천인공노할 기막힌 범죄들이 그간의 여성인권운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포용, 대화와 토론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다져야 할 위중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덮쳐왔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도 국경도 차별하지 않는다지만, 재난은 여성이 집중해있는 취약계층을 제일 먼저, 제일 강하게 타격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들의 삶이 회복될까요? 탈근대적 개인화, 특히 젠더관계의 개인화는 여성을 계급과 가족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율결정권을 얻게 하지만, 세계화와 시장경쟁을 매개로 한 여성의 자율결정은 다시 소외되고 차별받는 여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달라질 것이라고들 하지만, 여성이라는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소수자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에 대비하려면 현대문명의 기본을 질문해야 하고 더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이러한 시대적 명령에 닦아 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무국의 역량입니다. 유능하고 사명감있는 인재들이 모여 함께 성장하는 유쾌한 일터 만들기가말로 지난 5년 재임기간 매일 매일 눈앞의 과제였습니다. 일당백의 헌신으로 함께 해 온 재단 식구들에게 감사하며, 그동안 부족한 사람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 인내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W**



말들에게 희망을 2020년 봄호 No.142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여성단체들이 든든하고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고자 쉬지 않고 달려온 한국여성재단은 새이사장을 맞았다. 제3대 이혜경 이사장(사진 좌)이 5년여 재임기간을 마치고, 제4대 장필화 이사장(사진 우)이 취임하였다. (사진: 인스틸)

후원(한국여성재단)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말들에게 희망을 2020년 봄호 No.142 발행인 장필화 편집인 노지은 기획·편집 나능기획팀 발행일 2020년 4월 29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대표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Contents

- 02 사립문
 - 5년여의 소임을 마치며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기획1 한국여성재단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04 제3대 이사장 이혜경, 그리고 제4대 이사장 장필화를 만나다
- 06 한국여성재단 이해관계자님 고맙습니다
- 기획2 고통을 함께 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특집
- 09 고통을 함께 나누면 희망이 됩니다_김은희(미혼모협회 아이맘 대표)
- 10 나는 '이퀄리티(Equality)' 세대입니다: 여성의 권리 실현하기
- 만나고 싶었습니다
- 12 100인 기부 릴레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_홍원표 작가, 브랜드리스트
- 이슈와 현장
- 14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여성일자리 W-ing_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여성들의 이야기
- 16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_당신의 건강은 안녕한가요?
- 여성단체와 함께 뛰다
- 18 바로 여기, 지금 시작하는 성평등!
- 19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_최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대표)
- 20 페미니스트들의 아지트, '두잉'에서 연결되세요!_장연주(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 21 대학 페미니스트 정치의 2막을 열다_유니브페미
- 재단소식
- 22 재단활동 2020년 1~3월
- 24 기부자명단 2020년 1~3월
- 26 수입과 지출 2020년 1~3월

제3대 이사장 이혜경, 그리고 제4대 이사장 장필화를 만나다



이혜경
제3대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제3대 이혜경 이사장님이 5년여 재임기간을 마치고, 제4대 장필화 이사장님이 취임하였습니다. 성평등이야말로 보편적 정의이자 인류역사발전의 방향일 뿐 아니라 평등, 평화, 상생의 미래를 만드는 힘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여성들의 용기와 지혜에서 나온다고, 한마음으로 믿는 두 분 이사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두 분의 인터뷰는 한국여성재단 노지는 사무총장이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여성의 삶의 변화와 한국여성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우리 재단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님과 장필화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 이혜경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 리더, 장필화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장필화 이사장은 한국의 여성학을 일군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여성학의 대모이십니다. 1982년 한국 최초의 여성학 전임교수로 부임한 이래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리더십을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학자입니다. 특히 2005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는 UN의 세계여성대회 못지않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엄청난 성공이었고, 아시아 여성학회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른



장필화
제4대 이사장

다. 이 대회 of 조직위원장으로 장필화 이사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 함께 협력하게 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적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을 위해 이사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대도 큼니다.

2. 장필화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 리더, 이혜경 이사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배로서 후배인 저를 많이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혜경 이사장님은 경청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며 의견을 다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명석하게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이후 아시아여성학 제도화 전략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추동력이 없어지는데 이혜경 이사장님께서 강하게 신념을 가지고 계셨으며 정확한 현실 파악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셨고요.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계시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3. 이혜경 이사장님, 여성재단 이사장으로서 느낀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만 말하자면, 첫째는 재원조성 및 확보의 어려움,

둘째는 사무국을 좋은 일터로 만드는 과제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대중모금과 배분을 통해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민간공익재단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성평등을 위한 대중모금이란 어의모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선택한 핵심 모금전략은 100인 기부 릴레이와 기업사회공헌, 둘 다 그동안 주효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할 강점이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특히 100인 기부 릴레이의 경우 확장성의 한계가 들어나고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과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시대에 성평등 가치의 대중적 수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중모금 전략의 개발에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 개발을 포함하여 한국여성재단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무국의 역량입니다.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이 모여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유쾌한 사무국이 머리 속 그림일 뿐인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4. 이혜경 이사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재단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2016년 여성회의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강남역사건 이후 거리로 뛰쳐나온 영영 닷페미들이 영페미, 올드 페미들과 오프라인에서 조우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여성회의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성운동 내의 세대 간 차이를 확인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가 시작되었고, 여성재단과 손잡기도 하고, 2018년 여성회의에서도, 아마 2020년 여성회의에서도 함께 하였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생생한 기억은 역시 작년 연말 창립 2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입니다. 이사님들과 홍보대사님들의 열성적인 도움을 받으며 재단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20주년행사가 아름답고, 따듯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 활동이라 할 수는 없지만, 결혼 10주년을 기념하여 작지 않은 금액을 기부한 아직 실력이 빠듯한 젊은 맞벌이 부부, 모시고 지내던 모친/시모가 돌아가신 후 들어온 조의금을 그대로 들고 오신 노부부가 감동이었습니다. 성평등 가치 대중화의 가능성에 한참 고무되었습니다.

5. 장필화 이사장님, 재단 이사로서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한 기억을 나눠주세요.

이사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재단의 일을 밀도 있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여성재단은 IMF 이후 경제적 위기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글로벌한 문제라서 대공황이 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중모금을 해야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성재단의 존재가 필요하며 각 필요한 곳에 모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이혜경 이사장님, 재단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0년대 한국여성운동의 자랑스러운 금자탑입니다. 전국의 모든 여성단체들과 여성리더들이 한마음으로 탄생시킨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모금과 배분에 관한 한 최고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기부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신뢰와 촘촘한 연대를 쌓아왔습니다. 이제 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재원조성의 전략을 다변화하고 여성운동의 지형변화를 해석해내고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소수자, 여성의 든든한 대행자입니다.

7. 장필화 이사장님, 신임 이사장으로서 셀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굉장한 충성심과 신뢰감을 가진 기부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이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대중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 이전의 출발점은 지도층 인사가 동원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SNS 등의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며, 이혜경 이사장님을 필두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겠습니다. **W**

취재 나눔기획팀 성예현 과장

한국여성재단 이해관계자님 고맙습니다 : 2019 이해관계자 간담회



이사회위원 박옥희 이사, 한국여성재단 이사
 이사회위원 송다영 이사,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장
 기부자 왕인순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장
 기부자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파트너기업 강승성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사무국장
 파트너기업 최찬순 유한킴벌리 팀장
 파트너단체 이숙경 좀마네 대표
 파트너단체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한국여성재단 이해관계자 중대이슈 설문 조사 결과 선정된 4대 중대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3월 20일(금)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긴급 상황으로 인해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화 회담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여성재단의 주요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찬순 재단의 속성상 모금담당자, 온라인모금 전담 직원을 두고 모금 사업의 역량을 강화한 점입니다.

김영순 페미니즘의 사회적 흐름과 세대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미투 지원 사업에 이어 2019년에는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 확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 등의 신규 사업 지원, 동시에 모금 전략 또한 발맞추어 변화를 하고 전문 인력을 시니어급으로 선임하여 다양한 모금 전략 추진 등이 여성 운동의 기반이 되는 재단의 주요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숙경 모금액 증가와 함께 업무 시스템, 조직 문화 개선 등의 자발적 성찰에 기반한 재단의 지속가능한 방향성은 20년의 역사에서 비릇한 큰 성과입니다. 더불어 풀뿌리 여성 운동가,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유지와 확장을

통해 축적한 경험으로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적 사업 모델 제시도 여성재단이 20년을 유지하고 있는 성과의 반증입니다.

강승성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 문화 대중화와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금활동과 희망을 전달한 20년째의 모든 활동이 주요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출범이 많은 여성 단체 결성과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재단의 20년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 단체 역사에 있어서도 한국여성재단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2030년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여성기금 'W기금' 모금이 활발히 전개되어 재단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길 기대합니다.

왕인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외면 받을 수 있는 여성 활동가 장학사업, 풀뿌리여성리더지원사업, 성평등조성사업, 성차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점진적 확대 지속과 함께 모금 전담 전문가 배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의 투자를 주요한 활동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규 자원 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비영리 공익법인재단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지속가능한 성과입니다.

송다영 2019년에는 다양하고 알차게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별 기금 규모 대비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배분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은 단연 대표 브랜드라 칭할 수 있는데, 사업 주요 참여자인 한부모 여성의 실제 취업 시 자녀 양육과 근로 시간의 충돌 등을 고민한 사업 개선과 성장도 추구해야 합니다. 미투지원사업(2018)과 같은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과 활성화도 여성재단의 역할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성희롱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의 발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9년 선정된 4대 중대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제안 방향은 무엇입니까?

박옥희 여성재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파트너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고려할 때, 일반 후원자와의 접점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모금 전략 개발 및 실행(이슈3)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축소의 염려도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부자와의 점점 강화하는 등 기부자 에우프로그램의 체계화로 신규 기부자의 정기기부 전환, 기존 기부자의 지속가능한 후원 등을 통해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인순 모금은 늘고 고민되고 쉽지 않습니다.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안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신규 사업을 개척하는 재단의 강점을 살려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총 모금 규모를 함께 증대하면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하는 전략과 함께 파트너 단체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순 2019년 중대이슈를 신중히 살펴보면 모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분사업의 종류는 다양한 반면 사업별 기금은 크지 않습니다. 사업 수 대비 기금 규모에 대한 고려와 함께 배분한 여성 단체와 여성 운동을 모금의 스토리라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다영 여성의 삶이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이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보다 더 필요한 곳에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난제입니다. 장기적 재정 운용에 대한 전망 및 계획 보유(이슈1)는 모금 확장과 높은 인지도에 비례합니다. 온라인 모금을 통한 코로나19 사태 한부모 여성이나 여성 노동자 지원은 긍정적인 대

응 과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고 모금할 수 있는 통로 개발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기업 후원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문 법인과 협력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젊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폭력, 여성노동 등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규 사업이 발굴(이슈2)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경 2019 선정 4개의 중대이슈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사회적 이념과 경제적 가치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장기적 재정 운용에 대한 전망과 계획은 모금과 연관된 동시에 현실적인 전략 및 여성주의 철학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금에 제약이 있는 만큼, 대중과의 모금 접점을 강화하고 20주년 기념 모금의 대폭 증가를 발판 삼아, 기존 재단의 활동을 콘텐츠화하고 전략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모금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면 재단의 인지도향상 및 사회적 영향력 확대(이슈4)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최찬순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이슈가 선정되고 반복적으로 재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접근하여 양질의 솔루션을 찾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을 통해 다시 수정 계획 및 실행하는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곧, 지속가능한 재단의 출발입니다.

최유진 선별된 이슈는 전반적으로 한국여성재단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간 우리가 역점을 둔 의제가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측면인지 다소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속 작업으로 개별 사업을 단위로 한 평가 보다 여성 활동가 지원, 풀뿌리, 다문화, 안전, 문화예술인 등 주요 의제들이 아직도 필요한 의제인지, 확대해야 하는지 특화해야 하는지 평가가 요청됩니다. 더불어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간 재단에서 사업발굴을 해 온 방법이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한 모금 의제를 발굴하기에 적절했는지도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더 발전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해 주십시오.

김영순 재단이 꾸준히 펼쳐온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생

소한 대중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는 모금 전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시대적 과제 혹은 여성단체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금 전략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모금 전략을 전환하면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숙경 재단 20년을 맞이하여 여성 단체와 함께 축적한 인프라, 역량, 콘텐츠를 기반으로 작은 스토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대중의 일상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홍보와 모금의 연결 고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대간의 연결도 중요하여 연령대별, 세대별 새로운 시선으로 발굴하는 과정, 곧, 세대별 언어로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개발도 중요합니다.

송다영 배분 여성 단체와 활동가들이 지원 받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상호 지원과 후원의 주체가 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평등과 같은 주요 여성 이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유진 모금 확대를 위한 재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 CSR에 비해 비중이 작은 개인 모금. 특히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모금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단의 사업 지원 방식에 있어서,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단체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재능 기부,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공간이나 인프라 기부 등과 같은 형태의 다각화된 기부 발굴과 자원 유통 생태계 조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자, 파트너기업과 단체의 중대이슈 우선순위가 명확한 비전과 미션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 사업의 성과를 중심에 둔 반복적인 정보 공급을 통해 재단의 미션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인순 다양한 기부자와 파트너 단체 및 여성 활동가의 상호 소통 확대를 통해 재단 사업이 사회적 쟁점 이슈와 시대적 여성운동의 동향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의 강화는 파트너 단체의 긍정적, 부정적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기부자나 후원자의 기대를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이자 재단의 지속가능

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박옥희 사업, 홍보와 모금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모금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관, 조직, 법인 등의 여성이 마주치는 이슈를 여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사업으로 개발하고, 연구 성과의 축적은, 후원으로도 연결될 뿐 아니라 재단 모금의 신생 사업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강승성 이해관계자는 결국은 쌍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우리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나와 우리를 어떤 이해관계자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조직, 기관, 기업이 한국여성재단을 우선순위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이슈와 사업 프로그램을 잘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혜경 여성재단이 공감하는 어려움에 주목한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간담회에서는 여성운동의 진영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재단의 입장에서, '명확한 비전과 미션(운영원칙의 보유)'가 중대이슈로 제시되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장기적 재정 운용에 대한 전망 및 계획 보유'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재단에 대한 애정으로 구체적인 문제 파악과 함께 모아주신 유의미한 의견은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을 반영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선정장 장기적 재정 운용에 대한 전망 및 계획 보유, 효과적인 모금 전략 개발 및 실행, 재단의 인지도 향상 및 사회적 영향력 확대,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 이상 4대 중대이슈와 함께 간담회에서 제시한 사안과 주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면서 한국여성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재단 이사회와 사무처를 대표하여 약속합니다. **W**

나눔기획팀

※ 지면 관계상 간담회 전문 중 주요 내용을 요약 및 각색하여 게재하였음을 알립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면 희망이 됩니다



김은희
미혼모협회 아임맘 대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지역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오기 마련입니다. 그 중 미혼모와 아이들은 보수적인 대구에서 미혼모 가족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아동센터나 민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른 저소득 가족보다 현저히 낮아 민간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혼모 가정의 경우 사회성이 없어서 혹은 자의식이 강한 분들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보수적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존재 양식'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모든 여성시설 신규 입소 금지 공문" "공공 임대 주택 무한 연기"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생활 이용시설 코호트격리 조치 실시로 인한 임시 폐쇄 혹은 대면 상담 금지" "코로나 19 환자 이외 진료, 입원 금지" 조치 이후 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임신을 숨겨왔던 미혼모가 초진 기록이 없이 자택 출산 이후 병원을 방문했으나 신규 환자 진료 금지 조치로 코로나 비상상태에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아기와 엄마의 건강이 양해 되었고, 공적 보호 시스템이 무너져 네이버 지식인에 대구미혼모라는 도움 요청 글을 올리면 N번방 못지않은 패륜적 제안들이 넘쳐났으나 신고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확진자가 되었으나 아이를 돌볼 곳이 없어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미혼모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201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근로 중 미혼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92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92만 원의 소득으로 저축을 할 여력이 없던 근로 중 미혼모들은 이번 재난 상황에서 무급 휴직 혹은 실직 상태를 맞이했기에 공과금이나 월세가 체납되기 시작했고 협회에서 비상식품을 지원했지만 도시가스가 끊겨 전기포트로 커피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직접 지은 밥은 사치품이 되고 즉석 식품이나마 겨우 데워 먹일 수 있도록 식량 지원 신청이 속출했습니다. 무급 휴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고 재난 3개월 전 소득으로 재난지원금을 쿠폰으로 발급한다는 소식에 밀린 월세와 공과금으로 앞이 캄캄하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앞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어느 미혼모가 "아이의 배를 풀리며 키우는 어머니"가 되리라는 상상은 한 적이 없었다고 입양하지 않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책하는 글들을 자주 접합니다. 한국여성재단에서 대구의 미혼모 상황을 여러 곳에 알려주셔서 예상하지 않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스킨을 만들어 보내시고 아이들 먹거리를 봉지봉지 담아 보내주시는 등 지지와 응원을 해 주셔서 봉사자 모집도 할 수 없는 대구에서 단 하루도 쉼 없이 미혼모와 대구지역 산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걸 통한 공동체성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비상한 대응이 가동되어야 재난 이후 우리는 우리 사회 연약하거나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 누구나 존엄한 삶을 보장한 사회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정체성이 소외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지지는 다른 한 사람에게 의해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한국 사회 공동체성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W**

코로나 19 긴급구호 모금 파트너 단체 아임맘

한국여성재단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여성과 여성단체 지원을 위한 <100인 기부 릴레이 X 코로나 1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www.womenfund.or.kr/relay 문의 070-5129-5447

세계여성의날 기념 특집, 나는‘이퀄리티(Equality)’ 세대입니다 : 여성의 권리 실현하기



사진1 UN Women/Pornvit Visitoran

2020 세계여성의날(3월 8일 일요일) 테마인 ‘나는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이퀄리티(Equality) 세대입니다.’는 95년에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 베이징 선언25주년을 기념하는 UN Women의 새로운 다국적 캠페인, ‘Generation Equality, 이퀄리티 세대’와 이어집니다. 올해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젠더 이퀄리티(성평등)가 전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글로벌 공동체가 베이징 선언문(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을 적용하려 노력하면서 여권 신장을 위해 진척 중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또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5개년 마일스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여성, 평화 그리고 안전) 기념20주년, UN Women 설립 10주년 등 성평등을 위한 움직임에 있어 활력을 주는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세계가 공감하는 주요 의견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대다수의 여성과 소녀를 위한 실제적인 변화는 괴로울 정도로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단 한 개의 국가도 성평등을 달성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복합적인 장애 요소들이 법과 문화의 저변에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

습니다. 여성과 소녀는 계속해서 경시되고 있고, 더 많이 오래 일하지만 적게 벌고 선택의 폭도 좁으며,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게 얻은 여성주의 소득의 역행으로 엄청난 위협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은 성평등을 달성하고 이 세상 모든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보장 받는 범지구적 액션을 동원하기에 앞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를 상징합니다.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이퀄리티 세대로서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활동가를 만나봅니다.

네팔 Nepal : 수비나 슈레스따, 저널리스트 & 영화제작자



사진2 UN Women/Jyoti Keshar Simha

수비나 슈레스따(Subina Shrestha)는 수상 경력의 저널리스트이자 영화제작자입니다. 수비나는 자주 주요 언론사 뉴스에 자연 재해 또는 인간이 자행한 참사로 인해 영향 받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다루는 유일한 국제 방송 기자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수비나가 다루는 기사는 수비나 슈레스따(Subina Shrestha)는 수상 경력의 저널리스트이자 영화제작자입니다. 수비나는 자주 주요 언론사 뉴스에 자연 재해 또는 인간이 자행한 참사로 인해 영

향 받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다루는 유일한 국제 방송 기자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수비나가 다루는 기사는 사이클론 나그리스가 미얀마를 강타하고 나그리스의 후유증으로 인한 네팔의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발생한 어린이 노동 확대 등의 잠복 취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비나는 매우 어린 나이에 이미 여성 불평등, 차별, 편견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다큐멘터리 작품, ‘네팔의 소녀 노예들’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담보 아동 노동자*로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한 12살 소녀 캄라리스(Kamlaris)의 실제 사례를 다루어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르헨티나 Argentina : 바니아 에스칼레스, 저널리스트 & 여성운동가



사진3 UN Women/Vannia Escalles

바니아 에스칼레스(Vannia Escalles)는 본업은 의사이지만, 자신을 항상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운동가로 소개합니다. 자신이 설립 일원이기도 한 아르헨티나의 여성단체 Nu Una Menos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문화, 정치, 사회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니아는 말합니다: 나는 여성운동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여성을 위해 이 운동을 합니다. 성폭력, 여성 폭력과 차별 등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대신하여 거리로 나가 외치고 자신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할 기회를 위해 애쓰다 세상을 떠나거나 그러한 현실에 내몰리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현재 투쟁하는 이들을 위해 소리를 높입니다. 성폭력 예방은 사회 매우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그 가운데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는 성차별로 인한 심한 차별과 탄압을 먼저 인식할 뿐 아니라 성차별이 어떻게 자본주의,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와 교차하고 있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세네갈 Senegal : 제리 아질리논, HeForShe 챔피언 & 청년운동가



사진4 UN Women/ Khadidiatou Ndiaye

제리 아질리논(Jerry Azilinson)은 HeForShe for UN Women 세네갈 챔피언입니다.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OneCampaign의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니세프 세네갈 청년 위원회의 일원이자 여성 축구팀의 부코치이기도 합니다. 제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여권이 침해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에게 입마개를 씌운 채 성장을 열망하고 있는데, 이는 축구팀의 절반만 사용해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축구 코치와 같습니다. 제리는 여성이 아니지만, 그 누구에 못지않게 여권에 관심을 갖고 관련한 교육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종종 학교를 찾아가 여성의 권리와 성폭력, 성별에 대한 바른 관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로 남학생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성의 권리가 호의가 아닌 여성 스스로의 기본 권리라는 사실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더욱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역사의 바른편에서 서서 소리를 높이고, 입장을 밝히고, 집결하고, 크고 작은 행동을 실천하며 ‘여성의 권리’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퀄리티(평등) 세대입니다. 한국여성재단도 이퀄리티 세대 글로벌 무브먼트에 동참하여 <제18회 100인기 부릴레이 since2003>과 함께 올 한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지지할 수 있는 ‘I am Generation Equality, 나는 이퀄리티 세대입니다’ 캠페인을 런칭합니다. 지금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W**

캠페인 참여문의 나눔기획팀 070-5129-5447

* 담보 아동 노동자(Bonded Children Labourer):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도 버티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빚을 담보로 강제 노동에 착취당하는 아동
** 본 글은 UN Women 세계여성의날 특집기사 시리즈중 일부를 발췌 및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100인 기부릴레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홍원표 작가



1.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상업미술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한 홍원표 작가라고 합니다.

2. 100인 기부릴레이 참여 배경 및 기대 소감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이번 '100인 기부릴레이'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미팅을 통해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말 좋은 기획이라 생각하며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또 재단에서 작가의 창작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갖추고 있어 이번 영상 결과물에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스타일을 살려서 보기만 해도 밝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성평등은 모든 분야에 남녀 모두 삶의 기회가 평등하고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과 주자를 위한 응원 의 메시지를 말씀해주세요.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경쟁이 아닌 함께할 때 오히려 더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랜티스트



1.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브랜티스트는 브랜딩 아티스트 그룹으로 기업의 철학을 찾아서 정립하고, 그것을 사진, 영상, 인테리어, 로고, 그래픽 등의 다양한 작업을 통해 시각물과 공간을 만들어 무형에서 유형으로 재창조하여 시각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브랜드가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브랜드가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현대 시장에 맞게 올바르게 발맞추어 움직이고, 사람들이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100인 기부릴레이 참여 배경 및 기대 소감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브랜티스트는 작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양육 미혼모지원사업 맘업프로젝트, 창립 20주년 기념 후원의 밤, 여성 마을버스 운전기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W-wing 그리고 현재의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까지 여러 사업을 함께 협업하면서 각 사업의 철학을 정립하고, 많은 사람이 재단의 좋은 사업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100인 기부릴레이는 특별히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캠페인의 태도와 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브랜티스트는 이번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에서 캠페인의 철학적인 관점을 시각적으로 매력 있게 풀어내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일러스트 작가 홍원표님과 함께 콜라보하여 캠페인 홍보영상의 기획과 퍼블리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브랜티스트는 한국여성재단의 사업에 재능 기부하는 것을 봉사나 착한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재단의 기부자나 대중들에게 재단의 활동과 메시지를 오해 없이 올곧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활동 취지와 목적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과정 없이 재단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담백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랜티스트는 재단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평등'의 가치를 지금까지 함께해 온 4개의 프로젝트(맘업 프로젝트, 후원의 밤, W-wing, 100인 기부릴레이)에 걸쳐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성평등'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앞서 여성재단이 말하는 '평등'에 대한 가치를 나누는 일을 도왔다고 얘기했는데, 재단과 여러 번 미팅을 진행하면서 평등에 대한 많은 개념을 정립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여성이 겪는 불평등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현

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여성이 온전히 본연의 지위와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평등한 세상이 왔을 때 한국여성재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어떻게 질서를 정립하고, 그 어떤 소외계층 없는 모두를 포괄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외치는 사회적 역할이 재단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얼른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4.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과 주자를 위한 응원 의 메시지를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제작하는 100인 기부릴레이 홍보 영상은 캠페인이 가진 진정한 매력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로 기부를 하지만 과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기부금이 세상의 평등이나 유익함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 막연하고 외로운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인 기부릴레이는 똑같은 기부금은 기부하지만, 나 혼자가 아닌 나와 같은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하며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의 마음이 연결되어 이어진 '릴레이'입니다. 기부자는 이 레이스의 '주자'가 되어 함께 달리고 있으며, 머나먼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달리면서 함께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달성해가며 나아가다 보면 성평등 사회라는 궁극의 목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달할 거라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느끼는 기부라는 선행에 대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 의미 없고, 지치고, 중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도록,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외롭지 않은 경주를 많은 주자와 함께 달리는 것이 어떨까요? **W**

취재 나눔기획팀 김효신 대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여성들의 이야기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여 인생의 운전대와 마을버스 운전대를 잡고 힘차게 달리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은?

현대자동차 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력보유여성 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신나게 달릴 수 있도록 마을버스기사 취업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경력보유 여성이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으로써의 의미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운송업의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초 11번 마을버스기사 윤미연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약 3달 된 새내기 마을버스기사입니다. 나의 첫 번스 서초 11번은 예술의 전당에서 새벽 6시에 첫 운행이 시작됩니다. 오전 근무하는 날은 새벽 4시에 도착해서 마을버스 청소도 하고, 기름도 넣고 점검하면서 마을버스와 함께 달릴 준비를 합니다. 코스는 약 한 시간 걸리고, 한 코스를 6~8번 돌아요. 골목이 없는 편이어서 좋지만 비싼 차가 많아 혹시 사고가 날까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기사로 취업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는 딸이에요. 마을버스 기사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의아해하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묻기도 하고요. 취업하고 이른 새벽부터 나오고 늦은 시간 잠들어서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졌지만, 가장 든든한 응원자로 큰 힘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정경화

서울시설공단 사회복지직 8급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 재직 중인 정경화입니다. 운전은 참 맛있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막상 운전기사가 되고 나니 상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멋진 직업입니다.

최근 한 승객이 장애를 가지게 된 이야기를 하시며, "왜 하필 나인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승객을 보며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차하면서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다며 제 손에 쥐여준 사탕 세 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승객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순간, 운전사의 삶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강북05번 마을버스기사 최희경

번동초등학교에서부터 북서울꿈의숲공원, 미아사거리역, 창문여고, 미아8번지를 회차해서 돌아오는 코스를 도는 강북05번 마을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의 시작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도전하며 배우는 정신 자세로 임하면 삶은 그만큼 더 행복하고 축복받는 느낌이 들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운전직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일을 하는 저 자신이 무척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큰 사각 버스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 길으로 보기에는 몹시 거칠고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본 운행기술만 연마된 후에는 여성이 훨씬 편찮게 해낼 수 있는 직종이라는 것어요! W

취재 지원사업팀 복금희 대리

당신의 건강은 안녕한가요?

잔인한 선물 ‘난소암 말기’

“자주 더부룩하다는 느낌뿐이었는데 수술도 불가능한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명 중 한 명은 암에 걸리는 시대라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이 모든 게 꿈이면 좋겠습니다.”

여성 활동가인 우미정(가명)씨는 지난 해 11월 난소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여러 장기와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척박한 삶을 살아온 미정씨는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 분야에 최종 선정 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고, 현재는 서서히 회복중입니다.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CJ 모금방송과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부모여성가장과 자녀 그리고 여성공익활동가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성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은 크게 일반진료 분야와 치과진료 분야로 나

뉘며, 일반진료 분야는 일반치료비, 암치료비, 여성 활동가 건강증진비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여성가장 576명, 여성 활동가 128명이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시 반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아 개인의 부담이 큰 치과진료는 늘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리하여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 분야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치아의 상실과 함께 치료시기를 훌쩍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가장 희선(가명)씨에게 치아의 상실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으며, 이는 소극적인 대인관계와 심리적 위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행히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 분야에 선정이 되어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받았고, 대인관계도 회복되면서 직장에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마에게 희망을>은 단순히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서 심리적인 회복까지도 돕습니다. 되찾은 건강을 통해 가족, 동료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막막했던 미래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희망’을 꿈꾸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참여자들은 말합니다.



내일도 빛날 나를 위해

한국여성재단은 2019년부터 기존의 치료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예방적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의 개념이 단순히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함은 나는 괜찮아야 돼라는 신념으로 늘 모르는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동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건강 악화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 동료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건강은 필수요건이자 기본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회복하고, 일과 제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활동가들의 건강까지 신경 쓰고 챙겨주는 한국여성재단이라는 친정엄마 같은 곳으로부터 든든함과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활동가 정OO

당신의 건강은 안녕한가요?

우리 삶 속에서 건강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끝없는 속도전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모든 여성들이 삶의 무게로 인해 건강을 잃지 않고 소진되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건강지원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W**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

* 본 건강지원사업의 치과진료 분야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2014년 7월 1일 협약체결을 통하여 소속 치과들의 40%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시작하는 성평등!

봄의 알림과 함께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년도 100인기부릴레이와 일반모금, SOS캠페인 모금액 등 개인들의 작지만 큰 뜻을 모아 여성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꼬박 열아홉 해를 맞이하며,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사업이자, 대한민국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등 공정한 심사와 한국여성재단 내 주요 의결 3단계를 거쳐 최종 4개 분야, 총 18개 단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주제별로는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폭력예방, 여성인권 증진 등 한국사회 주요 여성 이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1년) 지원	
문화기획팀	여성주의 문화살롱 '라이딩 더 울프(Riding the wolf)'
일다	여성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 페미니스트 예술가들이 만든 서사
충북여성살롱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언니네트워크	싸우고,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Fight, Act, Change : FAC)
서울YWCA	성평등한 교회 만들기 사업 '무지개 다리, 교회 담장을 넘다'
여성환경연대	'관리 대상'에서 '자기 돌봄'으로: 여성 위생용품 사용 경험과 성분조사를 통한 몸 인식의 전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청년여성이 그리는 성평등 마을 설계도
페미씨어터	제3회 페미니즘 연극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농촌페미니즘연구회	일터, 삶터에서 성평등한 농촌을 위한 농촌페미니스트들의 역량강화
서울여성독립영화제	제2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여성주의 사진그룹 유토피아	지방 노년 여성, 여성 청소년 사진 프로젝트: 자기만의 정원
어나더스(anothers)	제2회 우리목소리

신생여성단체지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유니브페미	2020 대학 페미 네트워크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2년) 지원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신생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을 지원합니다!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은 신생여성단체지원입니다. 여성단체의 설립 초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여성운동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지원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즉, 관리운영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 중 인건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년 연속지원사업으로 다년도 사업지원을 통해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올해 신생여성단체지원분야에 총 3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차세대여성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스킨미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며 창립 출범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와 성평등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법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멀티카페로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두잉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3개 단체가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발판으로 여성단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사회 주요 여성운동 성장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이 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4월은 100인 기부릴레이의 계절!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우리는 다음해 "더 많은 여성단체에게 넉넉하고 충분하게!"라는 핑크빛 꿈을 꾸며 <100인 기부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위티'는 2019년 6월, 스킨미투 운동을 계기로 만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창립한 네트워크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그 밖에서 여성 청소년은 페미니즘으로만, 청소년 인권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험들을 겪습니다. 이는 대다수가 공론장의 의제로 논의되기보다는 개인의 '찝찝한', '기분 나쁜' 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여성 청소년이라는 소수자를 향한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입니다. 위티는 이 교차적인 차별의 문제 제기로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 인권과 페미니즘, 소수자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위티는 청소년, 여성, 소수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정치적 실천을 이행하며,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을 연결하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여성운동의 미래'가 아닌 존재 자체가 주체로 인정 받는 이들의 지속 가능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말하기는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동시에 정체성이 가지는 여러 한계들로서 번번이 한계에 부딪혀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을 지향하는 위티는 한 해 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교류와 연결을 도모하며, 장거리 이동이나 지속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정기적인 회원의 날 소모임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이번 4월, 총선 기간을 맞아 청소년 활동가와 정치인이 함께 청소년 페미니즘 의제를 드러내며 해당 인터뷰를 영상과 기사라는 콘텐츠로 발행하는 총선 대응 프로젝트 <안녕, 국회>가 진행됩니다. 직접 성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또 진행하며 단순히 '하지 마세요'에서 그치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아닌 청소년 페미니즘 관점의 성교육을 고민하는 <또래 강사단> 프로젝트, 청소년들이 주 1회 세미나를 통해 청소년 페미니즘을 함께 공부하고 또 직접 사업을 집행하며 위티의 활동가를 양성하는 집행위원회. 더불어 창립 이후 1년이 되어가는 단체인 위티의 평등한 기반과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평등문화 프로젝트 등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창립 이후 쉽 없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연결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위티의 여정 역시 응원해주십시오. (가입 링크: wetee.kr/21) 

글 최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대표)



페미니스트들의 아지트, '두잉'에서 연결되세요!



두잉(Doing)은 '페미니즘 멀티카페'로서 2017년 2월, 김한려일 전 이사장님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고 페미니즘 학당, 도서관, 카페, 갤러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지켰으면 하는 출자자들의 뜻을 모아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두잉(Doing) 사회적협동조합은 페미니즘 세계관 전파와 신생 페미니스트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페미니즘 관련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성평등을 이루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 정치, 법적 지위와 역할의 신장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올 2월 총회를 통하여, 2030대 영영페미니스트들이 이사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카페메뉴 전면 비건화 2) 인테리어 리뉴얼 3) 테이크아웃 일회용품 퇴출을 통해 폭력과 차별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인식 전환을 실현하고, 더욱 편안하게 넘나드는 페미니스트들의 아지트가 되고자 합니다.

네가 어디 있던 우리는 연결될 거야.

이번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 사업을 통하여 두잉 사업은 페미니즘을 알기 시작한 20-30대 여성들로 하여금 페미니즘 사고를 확장하도록 독려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페미니스트의 구체적인 연대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두잉 사회적협동조합이 페미니스트들을 위

한 사회/문화적 허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10주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5주씩 시즌제로 진행되며, <시즌 1: 나와 나, 알아가기>는 여성주의 인식론 기초강의와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통한 조직화작업(우리의 페미니즘 성명서 써보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즌2: 나와 나, 더 깊이 알아가며 관계맺기>는 자신의 감정과 몸에 솔직해지는 표현 드로잉 작업을 통해 관계를 단단히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함께하는 비건 밥상으로 네트워킹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두잉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이 되고 한국여성재단의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꿈으로 그리던 개인 페미니스트 간의 네트워킹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잉이 다양하게 연결되는 페미니스트들의 공간이 되도록 더욱 힘써보겠습니다. 자주 발걸음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

글 장연주(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대학 페미니스트 정치의 2막을 열다 '유니브페미'



유니브페미는 대학 내 제도 개혁을 위한 이슈 파이팅에 더불어 20대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20대 페미니스트 그룹으로, 대학의 경계를 가로질러 '총여 정치의 2막'을 열고자 합니다. 학생사회에서 소멸하고 있는 대안세력으로서, 누구도 시작할 적 없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유니브페미는 새로운 대학을 건설할 페미니스트 공동체입니다.

마녀들의 작당모의가 시작된다.

유니브페미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중 신생여성단체지원 분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는 수도권 권역 대학 내 단위와의 지속적 연대 채널을 구축하여, 대학 내 성평등/권리에 관한 이슈와 이팅과 실질 문제 해결을 바라볼 수 있는 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로 확장할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8 여성의 날을 기념한 마녀행진은 코로나의 여파로 대학 커뮤니티의 성범죄 2차가해와 여성혐오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으로 변경해 진행

하였고, 이의 지역구별로 돌아가며 권역별 대학 페미니스트 그룹과 네트워킹을 진행, 여성주의의 이론적/사회적 담론과 함께 학내의 주된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월별 세미나와, 대학 성평등 실태를 고발하고 정책적 요구를 마련하는 장이 될 전국대학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단체 간 연결을 범 페미니스트 연대체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집중도 높은 교류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 문화에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를 가시적으로 묶어내어 대학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꾀해보겠습니다. 마녀들의 작당모의에 함께해주세요! **W**

글 유니브페미



**<WOORI, 여성안심불빛사업>
태양광 LED 안내판 · 로고젝터 설치**

2020년 3월, 한국여성재단은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아 <WOORI, 여성안심불빛사업>의 태양광 LED 안내판과 로고젝터(고보조명) 설치를 진행했다. <WOORI, 여성안심불빛사업>은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태양광 LED 위치안내판과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중림동, 명동, 신당동, 청구동 등 여성안심귀갓길 12곳에 태양광 LED 안내판 58개를 설치했다. 태양광 LED 안내판은 기존 중구의 여성안심귀갓길에 위치한 철제 안내판을 대신하여 설치해, 야간에도 112신고위치 안내 표시를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현동과 중림동 일대 6곳에는 특정 그림이나 문구를 LED 조명을 통해 바닥에 투사하여 밤길을 밝히는 일종의 조명기구인 로고젝터 6개를 설치했다. 로고젝터는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경찰관 집중순찰구역,' '안심이 앱 설치,'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120)' 등의 문구를 비춤으로써, 범죄예방과 더불어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최종선정 결과**

지난 2월 27일,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풀뿌리여성활동가 7명, 여성문화예술인 8명(영상분야 3명, 작곡분야 2명, 기타분야 3명)으로 총 15명이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 주목할 부분은 풀뿌리여성활동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활동가들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예술인 분야는 '성평등 어린이 노래 프로젝트(음악)', '사금파리 정원(마임)', '메갈리아의 딸들(연극)' 등 이전 보다 다양한 장르가 선발되었다. 풀뿌리여성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여성운동 활동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이 진행할 영상, 글쓰기, 마임, 작곡, 연극을 통해서 여성주의를 재해석하고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속적인 여성주의 확장과 실천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은 2014년부터 캐시 SOS 상환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구호모금 진행**

한국여성재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난 3월 12일 온라인 기부 포털사이트 '해피빈'을 통한 온라인 모금을 시작으로, 재단의 온오프라인 모금 채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구호모금>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의 상황에 처했으나,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어린 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새로운 직장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중인 한부모 양육 여성 가장의 사연과 가진 재산을 모두 모아 힘겹게 작은 식당을 차렸으나 폐업의 위기에 처한 여성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해피빈 모금함과 재단의 긴급구호 계좌로 4,174명이 넘는 기부자님들이 모금에 참여해주었으며, 총 36,617,3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2020. 4. 20. 기준) 조성된 기금은 미혼모협회 아이맘 등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여성 가장 생계비 지원과 취약계층 여성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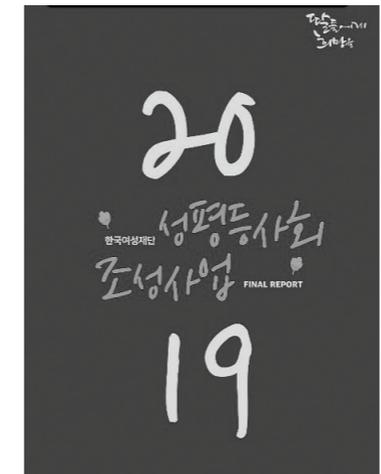
**양육미혼모지원사업
With Mom Project**

양육미혼모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일원으로 인식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With Mom Project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첫 파트너단체로 참여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지방 단체로의 지원을 결정한 소식에 반색을 표하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양육미혼모들을 위한 양질의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세대여성치과의사회가 후원하는 With Mom Project는 오는 11월까지 양육미혼모가정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과 육아용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 한국여성재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발행**

한국여성재단은 2019년 주요활동과 성과를 담은 <2019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를 발행했다. 2019년 지속가능성과로는 모금과 지원성과, 중대이슈 선정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이슈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주요 활동을 담았다.



**2019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발행**

<2019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일상의 성차별 문화 및 제도개선, 지역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 의식 확장, 온라인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긴급여성이슈 해결 등 총 20개의 지원사업 결과를 담았다.



**2019 한국여성재단
<짧은여행, 긴호흡 결과보고서>
발행**

한국여성재단은 2019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결과보고서를 발행했다. 교보생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후원으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16년째 이어온 <짧은여행, 긴호흡>사업은 단일팀, 연대팀,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 제주삼달다방과 함께하는 놀멍쉬멍 등의 4가지 영역을 나누어 여성활동가들의 성과 재충전의 내용을 담았다. 2019년도에는 53개 단체의 101명의 여성공익활동가들이 베트남, 라오스, 상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독일, 제주도 등의 국내외 여행을 통해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주)인포뱅크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NCT러린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송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현 강주란 강지연 강지행 강현선 강현욱 강해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복희 고영아 고윤설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현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박옥희 박영선 박용규 박은숙 박지혜 박현미 박혜경 박희환 주윤희과 공경애 구민수 구상근 구옥순 구인선 구자인 구준자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선 권영선 권영숙 권예은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원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는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선 김경애 김경연 김경혜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근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길영 김나리 김나영 김남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현 김득자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두용 김두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미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수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 김병관 김병규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담 김보라 김복영 김복자 김봉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철 김성택 김성태 김성환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 김경태 김술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은 김아라 김안나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연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룡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린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남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미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래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준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규 김재석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현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열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미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중덕 김중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지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욱 김태주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욱 김행민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영 김현욱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진 김혜정 김혜진 김홍선 김홍자 김희성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눔치과의원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희 남승연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남래 도승희 도이현 도인정 등고는 두석호

란치과의원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예슬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채연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는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병은 문보경 문선유 문시운 (문의석)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용 문재호 문정근 문정태 문진석 문희영 민욱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은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근희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연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애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연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래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선 박재욱 박정근 박정래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호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혜인 박 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호숙 박홍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욱 배선희 배성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준학 배진숙 배철용 배현영 백경자 백경흔 백광석 백선숙 백승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정 백정운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순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용태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샘치과의원 서경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 서 서서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남치과의원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옥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현주 소옥녀 소만숙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석 손은수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손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신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도연 안미숙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희 안세준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옥 안은성 안인에 안인영 안재철 안중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성은 양세경 양수옥 양윤정 양이숙 양인순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진 양희연 양희영 염규숙 염미영 염서영 염선애 염시현 엄 지 엄태호 엄미숙 엄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엄미자 연성치과의원 엄미정 엄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경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채현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위라경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남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는 유현김벌리 유혜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운 유혜정 유화열 유한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미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선희 윤여진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서연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연 윤홍준 윤홍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의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중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병진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사랑치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업 이상우 이상은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상광 이상우 이상원 이상은 이상일 이상자 이성현 이상호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련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현 이순희 이송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삼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헌 이유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 은 이은애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원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민 이재한 이점우 이점구 이점민 이점숙 이점아 이점옥 이점원 이점자 이점철 이점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종홍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수 이지영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튼플러스치과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하희 이하영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호재 이효대 이효숙 이효영 이효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미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애 임연옥 임영주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훈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용 장나미 장덕현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희 장애희 장연진 장연희 장영미 장영석 장영자 장영임 장옥형 장원희 장유경 장윤선 장은정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혜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유미 전은서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해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식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환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복주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선영 정성남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수희 정 속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원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현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창자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희경 정효지 제명선 조경미 조관중 조규원 조기환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숙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 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완기 조운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찬기 조춘이 조향례 조혁중 조 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홍식 주경은 주선숙 주 영 주장석 주애은 주혜명 즐거은치과 지상구 지숙자 진소식 진태환 진현진

차승현 차애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승권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은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보솜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승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원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옥 최영준 최옥숙 최윤정 최원일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아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운 최정민 최제운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희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구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할자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순이 한승호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옥 한정희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민 함모수치과의원 허목화 허미영 허 선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유정 허윤희 허은실 허혜영 현준식 호성투어 흥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옥 홍석보 홍성혜 홍순명 홍순용 홍영애 홍영희 홍에서 홍예영 홍예진 홍윤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영 홍현희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선미 황선미 황성철 황수환 황예은 황은주 황은진 황인철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주희 황준협 황진택 황현미 황현영 희망웅상

해피빈 기부자

해피빈 기부자 2,545명

이름이 누락된 기부자은 나눔기획팀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기부자명단 관련 문의 나눔기획팀 070-5129-5447

수입



- 기업지정기부금 71.2%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8.9%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6.7%
- 특정명의기금 4.0%
- 운영후원금 0.1%
- 기타수입 9.1%

(단위: 원)

항목	내용	금액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350,000,000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44,024,358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3,100,00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19,840,00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585,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44,367,981
총 수입		491,917,339

지출



- 모금사업비 1.8%
- 배분사업비 94.5%
- 홍보사업비 2.0%
- 연구사업비 0.1%
- 경상비 29.5%
- 시설비 10.6%
- 당기손실 -38.5%

(단위: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8,723,700
	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우리은행)	
	2. 소외여성 empowerment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봄빛장학금(봄빛기금)	
고유 목적 사업비	배분사업비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이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464,669,350
	3.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교보생명)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0,048,515
연구사업비	20주년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278,500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5,129,075
운영비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52,013,869
	당기손실		-188,945,670
총 지출		491,917,339	



QR코드를 스캔하고
더 많은 H-온드림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누구나 언제나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꿈

숨겨진 재능을 가진 장애인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 엄마도
성장의 기회를 원하는 청년도
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그려갑니다
누구에게나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은 사회적기업이
'H-온드림 창업 오디션'을 만나 그 꿈을 키워갑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의 일자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취업과 자립을 도와주는
사회적기업 - '테스트웍스'(H-온드림 창업 오디션 6기)

'H-온드림 창업 오디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100인 기부 릴레이
Since 2003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100인 기부 릴레이 X 코로나19

서로 돌보는 따뜻한 우리 사회,
안전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달리는 100인 기부 릴레이

지금 참여하세요!

캠페인 기간

2020.04.17(금)~05.16(토)



100인 기부 릴레이는 성평등사회조성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캠페인입니다.

100인 기부 릴레이로 조성된 기금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공익단체와 여성활동가의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조성된 기금은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재난으로 악화된 성차별 상황을 개선하고, 생계와 양육, 기본권을 위협받는 여성 및 여성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
안내

전화 02-336-6463 이메일 relay100@womenfund.or.kr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relay
후원계좌 농협 1279-01-000251 | 국민 079801-04-001536 (예금주 한국여성재단)